

반도체 교육과정 논의 진행

강나윤 기자 nadori814@knu.ac.kr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한 교육 과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원과 학부의 학과 신설은 물론 기존의 반도체융합전공도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새 정부 들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계속 언급되며 관련 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설립'과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인력양성' 등의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정원 증원 방침도 밝힌 상태다.

반도체 분야가 떠오르는 이유는 물리·화학·전자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업계는 수년째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은 2020년 기준 약 1,6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타 대학은 발 빠르게 기업과 손잡고 계약 학과를 만들거나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계약학과란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특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협력 산업체에 일정 인원 취직을 보장받는 학과 운영방식이다. 채용조건형 반도체 계약학과는 기존 3개교에서 올해 3개교가 더 추가돼 ▲연세대(삼성전자) ▲고려대(SK하이닉스) ▲성균관대(삼성전자) ▲서강대(SK하이닉스) ▲한양대(SK하이닉스) ▲포스텍(삼성전자) ▲KAIST(삼성전자)가 있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언급되며 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학교 역시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언스플래쉬)

할 수 있도록 해 협력 산업체에 일정 인원 취직을 보장받는 학과 운영방식이다. 채용조건형 반도체 계약학과는 기존 3개교에서 올해 3개교가 더 추가돼 ▲연세대(삼성전자) ▲고려대(SK하이닉스) ▲성균관대(삼성전자) ▲서강대(SK하이닉스) ▲한양대(SK하이닉스) ▲포스텍(삼성전자) ▲KAIST(삼성전자)가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산업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없다. 에브리타임 등 학생 커뮤니티 등에 SK하이닉스와의 계약학과 체결에 대한 계획서 작성 정보가 있었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략기획팀 기획조정처는 이와 관련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이

많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처는 "지난 8월 말 교육부에 대학원 첨단학과(반도체 등) 신설을 신청했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학과', '정밀의료학과', '메타버스학과'가 신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부에서의 관련 학과 신설은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법령과 지침 개정이 완료되고 세부 지침이 안내된 후 절차에 따라 신설과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 9월 서울캠퍼스(서울캠)에 신설된 '반도체융합전공'도 양 캠퍼스(양캠)를 아우르는 반도체 융합전공으로의 개편을 위해 교육 과정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융합전공 제도는 모집 단위에는 설

치돼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해 편성된 새로운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본래 서울캠 이과대학 소속 학과인 물리학과와 정보디스플레이학과가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국제캠퍼스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등을 포함해 양캠을 아우르는 형태로 개편하기 위한 과정이다. 기획조정처는 "9월 말까지 반도체 융합전공 신규 참여학과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본교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는 첨단산업과 관련해 경영대학의 빅데이터융용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인공지능학과, 생명과학대학의 스마트팜 과학과를 개설한 바 있다.

▶2면에서 이어짐

이에 대해 국제캠 총무관리처는 "2020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용 거치구역 설정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협조 요청으로 안전 관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캠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학생회장은 "오후 6시 이후로는 (차량 유도원 분들이) 퇴근하니까 사실상 통제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일 발생한 국제캠 전동킥보드 사고 또한 경비가 부재했던 새벽 시간이었다. 이어 전 회장은 "통제를 100% 할 수 없다면 안전하게 탈 수 있게 조치를 취하거나 제반 사항을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제캠의 전동킥보드 주차장 위치는 ▲공과대학 자전거 거치 구역 ▲제2기숙사 여자동과 멀티미디어 교육관 사이 구역 ▲제2기숙사 여자동과 남자동 사이 구역 ▲생명과학대학 수워실 앞 구역 ▲생명과학대학 자전거 거치 구역 ▲우정원 마을 입구 방면 자전거 거치 구역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 노천극장 방면 자전거 거치 구역 ▲예술·디자인대학 중앙출입구 계단 밑 자전거 거치 구역 ▲학생회관 자전거 거치 구역이다.

한편,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보호 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등이다.

본 프로그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022 학생설계전공 개발 공모전
'내가 만드는 전공'

• 접수기간
2022.09.13(화) - 09.23(금)

• 신청자격
학부 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 제외)
* 학생설계전공 이수는 학생설계전공 운영지침 제3조 (신청자격)의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가능

•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신청서, 학업계획서, 교육과정편성표를 작성하여 소속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선발인원 및 시상내역
- 최우수상(1인): 장학금 50만원
- 우수상(2인): 장학금 각 30만원
- 장려상(4인): 장학금 각 10만원
* 신청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사기준
- 전공명 및 학위명의 타당성
- 전공목표와 교육과정의 적합성
- 교과목 구성의 체계성
- 학업계획서 충실했음 등

• 선발결과 발표
2022.10.12(수) 예정
*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서울C] 02.961.0053~4 [국제C] 031.201.3038~41